

계획성이 결여된 건축행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최소한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택 등 200㎡의 규모는 법에서 위임한 소규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안전·구조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주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무식·신년하례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신협
새해 업무 시작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합동 사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이의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 임직원이 단결해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회장과 협회 임원, 서울건축사회 임원들은 사무식이 끝난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사무식 광경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총 973명 최종합격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올해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3,874명(특별전형 6명포함)중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2명을 포함한 총 973명이 최종 합격해 25% 합격률을 나타냈다.

최고득점자는 300점 만점에 282.5점을 얻은 조상원(전북대 졸, 34세)씨가 차지했으며 59세의 황영화씨가 최고령 합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자 명단은 본지 120쪽 참조)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업 등 전문인적응역 과세특례 폐지

과표양성화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포함

정부가 건축사, 변호사 등 18개 전문인적응역을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이들 전문인적응역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랍 22일 이같은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재경위가 논란 끝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각종 소득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기로 한데 이어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 전문인적응역에게는 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업, 공인회계사업, 측량사업, 기술사업, 설계제도사업, 기술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등 전문인적응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세특례는 일반과세자들이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비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단체 설립 자유화’ 법률개정 무산 가능성

국회 재경위, 공청회 등
여론수렴 뒤 ‘재심’ 결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해온 전자격사단체 강제가입 철폐 및 임의설립과 관련한 법률개정이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구랍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들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재심 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118개 사업자단체와 협회의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우리협회 등 관련 전자격사단체들은 공익성이 강한 단체들의 대국민서비스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송민구 회원,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예총, 건축·문화·미술·음악 등
분야별 대상 수상자 선정

건축가협회 제5대 회장을 역임한 원로 회원 송민구씨가 제12회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예술문화상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명복)가 매년 건축, 문학, 무용, 미술, 사진 등 10개 각 예술분야의 인사들중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예술인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 왔는데 건축분야에서는 송민구 회원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각 예술분야별 대상수상자는 영화 정광석(촬영감독), 음악 이성재(작곡가), 미술 김흥수(서양화가), 국악 황용주(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예능보유자), 문학 구혜영(소설가), 사진 박계서(사진작가), 연극 윤호진(극단 에이콤 대표), 연예 이상우(전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무용 정명숙(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 후보)씨 등이며 가수 설운도씨 등 15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에서의 혁신적 건축' IAA국제심포지엄

김영섭 등 아시아 각국 건축가 참가해
아시아건축의 정체성 재조명

아시아 각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건축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려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도 방갈로에서는 김영섭(한국,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대표), Gerard Da Chunha(인도), 마모루 가와구치(일본), C. Y. Lee(대만),

Yung Ho Chang(중국) 등 아시아 7개국의 유명건축가 18인이 참가한 제2회 IAA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에서의 혁신적 건축(Innovative Architecture in ASIA)'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아시아 건축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는데 특히 각국 건축가들은 아시아 건축이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대적 기술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또 다른 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R. Sundaram 등 인도의 건축가들은 서구문화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다민족 다원적 문화의 뿌리가 도시의 새로운 빌딩들에 도출되고 있는 인도의 현실을 예로 들면서 건축에 있어서의 혁신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도전, 형이상학적인 공간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표로 참가해 'Memory & Disire in Symbolic Architecture'란 주제의 강연을 펼친 건축가 김영섭씨는 자신의 건축이 "방법론상으로는 다원적 미학을 도입하려는 시도이자 이는 강요된 서구 모더니즘과의 화해내지는 동서양 미학의 공생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소개하고 "국제화된 건축이 그 비극적 속성으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도시를 황폐화시키기 전에 아시아의 건축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유산들을 현재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생 선발

40세미만 건축전공자 1인 선발
해외건축여행 경비 지급

김태수 건축장학재단에서는 올해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제」의 장학생을 공개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미화 1만달러의 경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해외건축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은 외국 유학 경험이 없는 전문대이상 학력의 건축전공자로 올해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40세미만의 건축가 또는 건축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며 자격심사를 거쳐 1명을 선발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건축작품이 수록된 포트폴리오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TSK건축사사무소 (02-588-2703~5)

(주)영화종합기술단건축, ISO9001 인증 획득

토목 건축 전기 소방의
설계, 감리 및 부가서비스 인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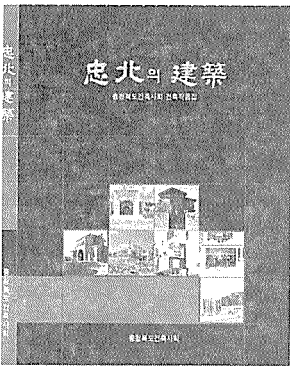
(주)영화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토목·건축·전기·소방의 설계, 감리 및 부가서비스 부문에서 ISO9001인증을 획득했다. (주)영화기술단건축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건축사회 회원작품집 발간

회원작품 117점의 사진과 도면 수록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가 회원들의 작품활동을 담은 건축작품집을 발간했다. '충북의 건축'이란 제명으로 발간된 이 작품집에는 주택을 비롯해 교육연구 근린생활 종교 공공업무시설 등 회원작품 117점의 컬러사진과 도면들이 수록돼 있어 지역건축의 모든 것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창립 이래 처음 발간한 이번 작품집을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에 무료로 배부해 건축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목조건축 설계교실 개강

미국 임산물협회의 전문교육프로그램에 건축전문가 참여열기 높아

최근 목구조주택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임산물협회(대표 안경호)의 목조건축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수운회관 6층 교육실에서는 건축사 등 건축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4기 목조건축 설계교실 개강식이 열렸다.

이번 설계교실에는 건축사와 건축과 교수 등 14명의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해 목조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 이는 건축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를 체계적 재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건축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의는 목조건축기술연구소 김진희 소장과 미추건축 송재승 소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10주동안 목재의 특성, 목구조 기본원리, 설계계획, 자재, 발주 등 목구조건축의 기초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각종 주요 핵심기술에 관해 교육을 진행한다.

목구조 설계교실 제5기 수강생 모집은 오는 99년 2월에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조건축기술연구소(02-734-2181)를 통해 알 수 있다.



개강식 광경

'과거와 현재의 공존' - 프랑스 건축사진展

프랑스의 고전 현대건축
컬러·흑백 작품 한자리에

고딕 성당건축에서부터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주제로 오는 1월 23일까지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딕 성당건축의 구조에서부터 고전주의건축, 바로크·로코코건축 그리고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인덕대학 건축과 배대승 교수가 촬영한 대표적인 프랑스 건축사진작품들

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과거와 현대의 공존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적 매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채택했던 건축재료의 사용과 구조방식을 살필 수 있어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과거의 건축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프랑스문화원(02-734-9768)

제5회 간향건축문학상 작품공모

이달 25일 접수마감

월간건축인 POAR에서는 제5회 간향건축문학상 작품을 공모중이다. 형식은 산문(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가능)으로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마감일은 99년 1월 25일이며 심사결과는 월간 건축인 POAR 99년 3월호를 통해 발표된다. 당선작 1편에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97년 3월에 처음 제정된 이후 매년 봄·가을마다 개최돼 이미 4인의 수상작가를 선정한 바 있는 간향건축상은 건축에세이스트들의 글을 통해 건축세상 구석구석의 풍성한 얘기들을 전해 왔다. 응모자는 아래 주소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 청호빌딩 201호(우: 150-043)
월간 건축인 POAR

'간향건축문학상' 담당자 앞

- 문의: 02-637-3890, 637-2842